

‘그분의 별’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1.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 하러 왔습니다.”(마태 2,2)

오늘 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 하러 온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께서 유다 베들레헴 어느 허름한 외양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분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구세주 탄생 소식을 알고, 별의 인도를 받고 찾아왔습니다.(그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교부 오리게네스는 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날을 삼왕내조三王來朝 축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2. “그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마태 2,11)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던 것을 발견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이 “구유에 누워계신”(루카 2,7참조)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물 상자에 담아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을’ 유대인들의 임금님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신성神性이 온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나게’(公現) 되었습니다.

3. “그분의 별”(마태 2,2)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 밤에, 그 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따뜻한 별빛이 내린다.’라는 노래가사처럼, 그분의 따뜻한 별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내려왔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따뜻한 별빛이 차가운 죽음의 장막을 걷어내고 새 희망과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분의 별은 꺼지지 않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난 한 해 이런저런 일들로 혼란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2018년 황금 개띠 무술년戊戌年, 더 따뜻하고 평안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유해욱 요아킴 신부 | 남지선교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1독서 이사 60,1-6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2독서 에페 3,2,3,4,5-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마태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3면 2018 사제 서품식 안내

7면 임마누엘 장학회 감사 인사 및 안내

기계적이지 않은 전례

점집이 붐빈다.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시대에 점집에 대한 의지는 다분히 역발상으로 보인다... ...교수는 “젊은이들이 살아갈 철학이 부족하고 사회적 어른이나 확신할 만한 정부 정책 등 믿고 따를 모범이 없다 보니 발생한 증상이 점성술의 유행”이라고 진단했다. 미신적 경향이 커진 것이라기보다는 막막한 삶에 대한 질문에 마땅히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교수는 “과학기술이 삶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가치관의 문제나 사회적 불안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 서울경제 '토요워치' 17.12.29. 기사 -

미사전례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원천이요 정점입니다(교회헌장 11항). 우리는 전례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시대가 변했다, 사람들이 변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사이, 많은 이들이 그 살아갈 힘을 점집이나 유사종교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어야지 미신을 믿지 말라고, 전통신앙을 지켜야지 유사종교에 빠지지 말라고, 주일의무를 지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례를 통해, 하느님 말씀이 신자들 마음속에 울리고, 하느님을 체험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예전 글을 다시 인용해봅니다.

박물관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다.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적절한 '의미'를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기관이다...

무당이 더 이상 칼 위로 올라서지 못할 때 사람들은 떠나버린다.

- 전진성 -

소식

●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봉헌



양덕동본당 신자들이 배기현 주교의 강론을 듣고 있다.



배기현 주교의 주례로 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는 2017년 12월 24일 주교좌 양덕동 성당(주임 : 김용민 레오나르도)에서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를 거행하였다. 배 주교는 양덕동본당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였다.

● 교구 신학생 동계연수

교구 신학생 동계연수가 2017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실시되었다. 연수는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성소국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신학생들은 기도하기, 기도 체험 나눔 등을 통하여 영적으로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연수 중 아가페 시간에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가 깜짝 방문하여 신학생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김정훈 신부와 교구 신학생들



2018 교구 사제 서품식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여러분의 정성어린 기도 속에 교구 부제 3명이 사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동행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복된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들이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참된 목자의 길을 따라 일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사제단

사제품 대상자



허기원 마르첼리노
첫미사 하대동성당
2018년 1월 11일(목) 10:30



주경환 십자가의 요한
첫미사 월영성당
2018년 1월 11일(목) 19:30



정재덕 안토니오
첫미사 중앙동성당
2018년 1월 12일(금) 19:30

사제들을 위한 기도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주님을 충실히 따르고 사랑하는 사제들을 굽어살피시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증언하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믿음을 따르고 지켜가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봉사를 본받고 실천하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가난을 받아들여 자유롭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겸손을 배워 스스로 낮추게 하소서.
사제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여
하느님 백성의 길잡이가 되고 일치와 중심이 되게 하소서.
사제들이 모범이 되어 성실한 젊은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꺼이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 일 시 : 2018년 1월 10일(수) 14:00 | ■ 장 소 : 성지여고 강당 | ■ 주 례 : 교구장 배기현 주교

“이민과 난민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레위 19,34)

교황 직무를 시작한 첫해 동안 저는 전쟁과 박해, 자연 재해와 빈곤을 피해 달아난 수많은 이민과 난민의 비참한 상황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가 2013년 7월 8일에 람페두사를 방문한 이래로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해석해 보고자 애써 왔던 “시대의 징표”임이 분명합니다. 교황청에 새로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를 설립하였을 때, 저는 당분간 저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이민, 강제 이주민,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표명할 특수한 부문을 원했습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모든 시대의 환영받는 이방인이건 거부되는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십니다(마태 25,35-43 참조). 주님께서는 더 나은 미래를 찾아 고국을 떠나야만 하는 모든 이를 교회의 모성애에 맡기십니다. 이러한 연대는 출발과 여정과 도착, 그리고 귀환에 이르기까지 이주로 체험하는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가 모든 신자와 선의를 지닌 모든 이와 공유하고자 하는 중대한 책무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현대 이민의 수많은 도전들에 너그럽고 신속하며, 지혜롭고 통찰력 있게 응답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

: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환대하기**는 무엇보다 이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목표한 국가에 들어가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도주의 비자와 가족 재결합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더욱 많은 나라들이 개인적 공동체적 후원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아울러 특별히 취약한 난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를 개설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웃 나라의 분쟁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에게 특별 임시 비자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이민과 난민에 대한 집단적 독단적 추방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간 존엄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곳에서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저는 이

민과 난민에게 최초로 제공하는 적절하고 존중 어린 보살핌의 중요성에 관하여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이미 시작된 환대 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되면 인격적 만남에 유리하고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성공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저의 전임자이신 베네딕토 16세께서 강력히 언명하신 인간 중심의 원칙은 언제나 국가 안보보다 개인의 안전을 우선시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따라서 국경 통제의 책임을 맡은 주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들이 처한 상황은 이들이 개인의 안전과 기본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엄하기에, 불법 입국자들을 억류하는 것 이외의 대안적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

교회의 사목 전통에 따라 교회는 앞서 제안한 모든 계획을 실현하는 데 헌신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서는, 정치 공동체와 시민 사회가 반드시 각자 지닌 책임에 따라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9월 29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정상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국제적 차원의 책임을 공유하여, 이민과 난민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민과 난민을 지원하는 행동을 결행하려는 바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국은 2018년 말 이전까지 두 가지, 곧 난민과 이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의 초안을 작성하고 승인하는 과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과정들에 비추어 다가올 몇 달은 앞서 제가 네 가지 동사로 설명한 구체적 행동들을 후원하고 지원할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글로벌 콤팩트의 승인으로 이어질 이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정치 사회 활동가들, 또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이 담화를 공유하여 줄 것을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이민과 난민의 희망과 또 이들을 환대하는 공동체들의 열망을 성모님의 전구에 맡겨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응답하여 다른 이들과 이방인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 담화문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에서 참조 바랍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임선혜

유럽 고음악 오페라의 프리마돈나 임선혜(42)가 2016년 여름 평창 대관령음악제에 참석, 베토벤의 <다장조 미사>와 바흐의 <만민이여 신을 찬양하라> 등을 노래하였다. 이를 취재한 기자는 그녀가 왜 '고음악의 디바(여신)'로 불리는지를 잘 보여주었다며 '수면을 스치는 물수제비 같은 음색' '바흐 칸타타' 등 고음악 진수 선사 '눈물로 깊은 슬픔 표현' 등의 용어로 그녀를 극찬하였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더 마스터-음악의 공존'이란 TV 프로는 그동안 임선혜를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녀를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여기서 임선혜는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외모에 풍부한 감정 표현과 맑고 높고 경쾌한 고음 처리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며 '레전드 급'이란 평가를 받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에서 전율을 느끼고 위로와 감동을 받았으며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녀의 노래가 이토록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음악적 재능과 성격, 부단한 노력, 아름다운 외모 등이 밑받침이 되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녀의 신심이 아닐까 싶다. 강원도 철원 태생인 임선혜 아녜스는 어려서부터 성가대 활동을 하는 어머니

박 체칠리아를 따라 성당엘 열심히 다녔다. 대학입시에 바쁜 고3 때도 주일미사를 거르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났던 그녀는 전문적인 레슨을 받지 않고도 고교시절 전국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서울대 음대에 무난히 합격을 한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독일 정부 장학금으로 독일 국립음대에 유학하던 그녀는 23세 때 고음악계의 거장들에게 발탁되어 일약 고음악계의 신데렐라가 된다. 고음악은 헨델, 바흐, 베토벤, 비발디 등 거장들 시대의 음악을 일컫는 말로 대부분 그리스도교 영성을 바탕으로 한다. 신심 깊은 임선혜를 고음악으로 인도 해주신 분은 틀림없이 성령이었을 것이다.

2009년부터 매년 각 성당과 소외된 곳을 찾아 '희망나눔콘서트'도 열고 있는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지금은 제가 클래식 본 고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신께서 다른 용도로 저를 쓰시고자 하시면, 저는 미련 없이 당장 무대에서 내려올 거예요. 원래 공짜로 받은 것이니 주신 분 뜻대로 따라야죠." 이 맑고 깨끗한 새해 첫 주일 아침 임선혜 아녜스 자매의 종달새 같은 천상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진다.

“ 삶의 향기 ”

가정 기도

박정욱 비비안나·양덕동분당

밤 10시,
가족이란 이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

저녁 기도를 바친다.
가정과 자녀, 부부를 위한 기도 가운데
돌아가신 부모님을 잊지 않는다.

사제, 수도자, 시복 시성 기도와
성모 찬송의 소리가 낭랑하다.
감사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묵주 굴리는 손 위로

성모님의 손이 살포시 포개지고,
촛불은 속 깊게 제 몸을 태운다.

네 탓이 내 탓으로 바뀌는 시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선물을 안고
죽음의 밤을 맞는다.

지금 이 순간 안에 내재된
영원한 삶을 꿈꾸며.



“새해 절주!”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입 직원은 참석 자체로 빛이 나고, 과장님은 2차까지만 가셔야 하고, 부장님은 1차에서 떠나셔야 하고, 관장님은 참석지 않고 전화로 “어, 오늘 내가 좀 바빠서 참석하기 어렵겠네, 내 알아서 계산할 테니 맛있는 거 먹도록 해요.”라고 할 때 가장 빛이 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 “회식”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니 여기저기 술자리도 많아집니다. 지난날 복지관에서 일할 때가 떠오릅니다. 직원들 간에도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회식 자리가 잦아집니다. 관장님이나 높은 분은 이런 자리에 눈치껏 빠져 줘야지 직원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손위 어른들과 식사라도 하면 조심되기는 누구나 같습니다. 신자이든 직원이든 식사자리에 가면 신부님 옆에는 잘 앉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괜한 분위기 전환용 우스개로 “내 옆에는 뭐가 묻었나?”라고 하면 분위기는 더 썰렁해지고, 마지못해 제일 젊은 직원이 벌써듯 제 옆자리에 앉습니다. 회식이 시작되고, 제가 고기라도 구울까 하고 집게를 들면 큰일 납니다. 두어 칸 떨어진 곳에 앉은 ‘고참’ 직원이 어떻게 알고 제 옆자리 신참들에게 눈총을 마구 쏘아 댍니다. ‘어디 감히 관장 신부님께서 집게를 들도록 하느냐!’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제가 눈총에 맞은 듯 쑥스러워져서 집게를 놓고 술잔을 듭니다. 그러면 ‘고참’ 직원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신부님께서 잔을 드셨어요. 우리도 한잔합시다.” 모두들 당연하다는 듯이 잔을 부딪치며 저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또 멋쩍어져서 술을 ‘원 샷’ 하면, 술잔을 입에 댔다가 내려놓던 직원들이 다시 잔을 들고는 별걱별걱 ‘원 샷’을 합니다. ‘관장님께서 잔을 다 비우셨는데 직원이 어떻게 잔을 베어 먹는다는 말이냐!’라는 뜻이. 이래저래 회식 자리에는 관장이 빠져주는 것이 본인도 편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해줍니다. 이쯤 되면 울리지도 않는 전화기를 꺼내 들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 그래. 오늘 만난다는 걸 내가 깜빡했네.”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따라 일어나면 자리에 앉으라는 시늉을 하며, 약속을 깜빡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라면 끓일 물을 올리며 생각합니다. “쩍, 다음부터는 회식 안가야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기 집에서 술을 낮게 마시고 제대로 깨져야 ‘좋은 회식’이었다고 하던 시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통계를 보았습니다. “소주 1병 이상의 주량을 갖고 있다는 사람 중 종교가 천주교인 사람이 39.3%로 가장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찌다가 천주교 신자들은 술 센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술이란 많이 마시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독’인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천주교 신자들이 술을 제일 못 마신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저도 술을 끊어야겠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것 참! 끊기에는 뭔가 허전하고... 그래도 줄이긴 줄여야겠고... 여러분들도 술 좀 줄이실 거죠?

천주교 마산교구 임마누엘 장학회

“연말 결산 보고를 드리며...

날씨가 추워질수록 따스한 아랫목이 그리웁니다. 올 한 해 동안 임마누엘 장학회를 도와주신 후원자님 한분 한분께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회의 따듯하고 든든한 아랫목 이웃이 되어 주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2018년 1월

천주교 마산교구 임마누엘 장학회 이사장 총대리 임상엽 마르코 신부

■ 2017년 장학금 후원 현황(2017년 12월 27일분까지)

| 연도 | 수입 적요 | 금액 | 구분 | 지출 적요 | 금액 |
|------|--------------|--------------|--------------|--------------------|------------|
| 2017 | 전년도 이월금 | 480,239,615원 | 상반기 | 중학생 7명 × 300,000원 | 2,100,000원 |
| | | | | 고등학생 7명 × 700,000원 | 4,900,000원 |
| | 예금이자 | 8,046,481원 | 하반기 | 중학생 7명 × 300,000원 | 2,100,000원 |
| | | | | 고등학생 7명 × 700,000원 | 4,900,000원 |
| | 후원금 | 51,379,000원 | 계 | 14,000,000원 | |
| 계 | 539,665,096원 | 잔액 | 525,665,096원 | | |

김덕실, 교구 여성협의회, 김계정, 김승일, 김연주, 김완수, 김용호, 김종협, 박상영, 박성지, 박승엽, 박현주, 박희석, 부산교구 빈민사목, 서순자, 신영숙, 신철수, 와이즈만, 유진희, 유현자, 이갑순, 이군수, 이종철, 임상엽, 조병남, 조원제, 조임순, 지무영, 최봉근, 하선애, 익명의 후원자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구에서 운영하는 임마누엘 장학회는 故 박주선 안토니오 신부님께서 기부하신 기금을 바탕으로 1996년 1월 4일 설립되었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장학생 선발 과정

매년 3월 장학생 선발 요청 공문 발송
 △
 지구별, 학교별, 교구 성소국



추천된 학생들을 바탕으로 정기이사회에서 장학생 선발
 △
 중학생 연 60만 원, 고등학생 연 140만 원(3년간 지원)



매년 14명의 장학생
 △
 장학금 전달

● 후원 계좌 안내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국민은행 | 651-01-0800-750 |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 다시 한 번 장학 사업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일에 많은 분의 관심을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2018년 1월 12일까지 개인정보와 후원금 입금내역을 확인해주세요. 15일부터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님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올바르게 등록되었는지, 소중한 후원금이 잘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 문의 : 천주교 마산교구 임마누엘 장학회 055)249-7015, E-mail : mssamu@hanmail.net

교회의 삶에서 보는 초기 일치 공의회들(4~5세기) 5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와 아리우스 위기의 해결

아리우스주의로 야기된 혼란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신학 발전이 이루어졌다. 신앙 정식을 표현하는 신학 용어들이 더욱 명백해졌다. ‘우시아 *ούσια*(본질)’와 ‘휘포스타시스 *ύπωστασις*(위격)’에 대한 구별이 분명해졌다. 한 본질이라는 점에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는 것과, 두 위격이라는 점에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는 것 이 두 전문 용어로 인해 가능해졌다.

카이사레아의 바실리우스 주교는 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일치점을 도출해 냈다. ‘성령이 하느님인가?’ 하는 하나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아리우스파들은 성령은 하느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 때문에 그들은 ‘성령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란 별명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바실리우스는 자신의 저서 『성령론』에서, 성령도 또한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는 점을 논증했다. 그의 친구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도 바실리우스와 같은 노선에서 글을 썼다. 바실리우스는 동방 교회의 다른 주교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설득했고, 아타나시우스에게 서방 교회와 긴밀한 유대를 맺으라고 요청했다. 갈리아와 이탈리아의 주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방 교회가 겪고 있는 혼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로마의 다마스스 주교는 화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아리우스파 발렌스 황제가 아드리아노폴

리스에서 고트족과의 전투에서 사망하자(378년), 사람들은 그가 하느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서로마제국의 그라티아누스 황제와 동로마제국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결국 신학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 논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선포했고(380년),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를 소집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동방만을 위한 공의회였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선포된 신앙 정식을 수호하고, 최근에 일어난 여러 이단을 반대하기 위해 소집된 공의회였다. 따라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니케아 신경을 다시 확인하고, 니케아 신경에 성령에 대한 언급을 추가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는다. 성령께서는 성부로부터 발하시어, 성부와 성자와 함께 흠숭과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매 주일에 고백하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작성되었다. 8세기에는 라틴 교회의 주교들이 여기에 그 유명한 ‘필리오퀘 *filioque*(그리고 성자에게서)’를 첨가시켰다. 그런데 이것이 11세기에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 교회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방 교회를 갈라서게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만큼 억울할까



백남오 시몬 베드로 • 수필가

삶이 고통스러워 힘들 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해 본다. 아무런 죄 없이 발가벗기고 채찍질 당한 채, 머리에 조롱하는 인파들로부터 가시관까지 씌워진 채, 말없이 피 흘리며 십자가의 죽음을 택한 그분의 참혹한 모습을 망연히 바라본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가슴치고 통곡할 일이 있다 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하며 고통스러울 것인가를 자문해 본다. 그분의 아픔과 상처를 생각해 본다면 나의 상처는 참으로 별것 아닌 것이다. 얼마든지 위로받고 극복할 수 있음이다.

인간의 존재가치는 깨달음에 있다고 한다. 이 깨달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목마름의 고통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육체적인 아픔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우리의 삶도 아픔과 고통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결국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러한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리라. 신앙의 가치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깨달음에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고통 안에 구원의 뜻이 있고 새

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며, 육신을 능가하는 영적인 것의 위대함이 있다. 또한 인간이란, 자신을 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이 신으로부터 주어졌는데, 고통이란 바로 이 초월성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신비라고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시인 보에티우스는 “행복은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불행은 언제나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고통은 사람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훌륭한 학교이다. 눈물이 눈 속에 끼어 있던 먼지를 씻어 주듯이 한 번도 눈물 너머의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이 참으로 어떨다는 것을 알기 힘들다. 그러므로 고통은 세상 구원의 도구가 되며 초자연적이다. 또한 그 안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인간성과 존엄성과 사명감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다분히 인간적이다.

그리스도가 죄 없이 고통을 받으시므로 고통으로써 사랑과 선을 창조하신 것이다. 인류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끌어 내어지며 십자가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이 흐르는 강의 출발점이다. 한 해가 시작되는 신년 벽두에, 하느님이 착한 이에게도 고통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한국 틴스타 지도자과정 워크숍' 개최 안내

일시 : 1. 17.(수)~20.(토) 4일간
09:00~17:00
장소 : 교구청 4층 회의실
인원 : 선착순 30명(기존 수강자는 재교육으로 참여, 3년마다 자격증 갱신 요함)
참가비 : 15만 원(점심식대, 교재비 포함), 재교육생 5만 원, 농협 301-0003-8497-31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참가자 실명으로 입금
신청 : 1. 8.(월)까지 본당 사무실 방문 접수 또는 가정사목국 전화 신청
문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팩스 055)249-7100

2018년 교구 연령연합회 정기총회 안내

일시 : 1. 13.(토) 14:00
장소 :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대상 : 각 본당 연령회장단
신청 : 1. 7.(주일)까지 각 지구연합회장에게 참가인원 통보(각 본당에 발송된 공문 참조)
문의 : 회장(정 예로니모) 010-6677-6675

2018년 신앙대학 총동문회

일시 : 1. 20.(토) 11:00
장소 : 교구청 2층 회의실
대상 : 운영위원 및 각 본당 대표
안건 : 졸업생을 위한 심화교육과정 건
문의 : 회장 010-4581-5420

가톨릭 여성회관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모집

시간 : 09:00~13:00(4시간) 월 1회
내용 : 급식 재료 손질, 조리, 배식, 설거지
혜택 :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
문의 : 가톨릭 여성회관 한마음의 집 055)299-2471, 010-5529-6728

◆ 수품자 선발 예식 ◆

일시 : 1. 9.(화) 19:30
장소 : 교구청

◆ 전국 교육·청소년국장 회의 ◆

일시 : 1. 10.(수)~11.(목) 1박 2일
장소 : CBCK

교 구

■ 제10차 교구 청소년 성령세미나(2박 3일)

일시 : 1. 12.(금) 14:00~14.(주일) 16:00
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 젊은이성령쇄신봉사회 myhs.or.kr 010-8864-7067, 010-2879-4645
※ 파견미사 초대 1. 14.(주일) 14:00

■ 예비신학교 지원반 모임

일시 : 1. 14.(주일) 10:30/ 장소 : 교구청
문의 : 성소국 055)249-7061

기관·단체

■ 청년 성서 그룹 공부 모임

대상 :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 우리나라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는 미사

일시 : 매주(금) 19:30
장소 : 교구청 지하 성당
문의 :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 정의평화위원회 회의

일시 : 1. 10.(수) 19:00/ 장소 : 교구청
문의 :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 교구 여성협의회 총회

일시 : 1. 9.(화) 10:00/ 장소 : 교구청
문의 : 회장 010-6564-7065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회의

일시 : 1. 12.(금) 19:00/ 장소 : 교구청
문의 : 평협 055)249-7114

■ 도박을 끊고 싶으신가요?

매주 정기적인 모임으로 도박질병을 치료하고 도박이 없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익명의 모임입니다(이모임은 자조모임으로 일체의 회비는 없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 www.dandobak.or.kr
장소 : 월남동성당, 매 주일 19:00
문의 : 010-9992-3443

■ 마산장애인복지관 적응훈련반 이용자 모집

시간 : 월~금 09:00~16:00
대상 : 창원시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 장애인(수시 모집)
이용료 : 6만 원(수급권자 무료, 차상위계층 50% 감면), 식대 4만 원
내용 : 기본자립생활훈련(사회적응훈련, 경제교육, 체육활동, 특별활동), 직업인식·탐색훈련(직무별 탐색, 직업인식교육), 직무기능습득훈련(작업활동, 공과훈련), 취업알선(개인별 직무기능 및 특성에 맞는 업체 알선)
문의 : 직업지원팀 055)247-5195

기 타

■ 로사리오 기숙사생 모집

대상 : 여대생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로 31길5-16
문의 : 02)741-3071, 010-9333-4532

■ 2018년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문의 : 전진상교육관 02)726-0700, 0701 www.jjscen.or.kr 게시판 참고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영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라섹수술,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의원

EX500엑시머레이저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결혼정보회사

가나혼인잔치
(마리아요셉결혼이야기)

전국 : 1566-6205
부산 : 051)817-3887~8
서울 : 02)3141-3888



백합식품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수녀원 메주,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대추, 대추즙
대구 053)257-1771, 서울 02)2202-8392
공정(자민) 053)857-2037, www.spcofood.co.kr



가톨릭신문투어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2/13 발칸반도 성지순례
11박 12일 경비 : 350만원

2/18 3/11 성모님 발현지
12박 13일 경비 : 375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 2018학년도 목포가톨릭대학교 정시 신입생 모집

■ 보건복지교육계열 4년제 대학 ■ 취업 잘 되는 대학 ■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 만족도 높은 쾌적한 최신 기숙사

모집인원 : '가'군 간호학과 14명
원서접수 : 1. 6.(토)~9.(화)
인터넷 원서 접수처 : 유웨이
문의 : 061)280-5108, 5150

■ 서울삼성산성지 1월 2박 3일 치유 대피정

일시 : 1. 12.(금) 18:00~14.(주일) 15:00
문의 : 010-8275-4600/ 마산역 김안과 앞

■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올레길·오름 트레킹, 미사(성무일도), 나눔
일정 : 1. 14.~16./ 1. 26.~28./ 2. 3.~5.(한라산)/ 2. 25.~27./ 3. 3.~5./ 3. 12.~14.
문의 : 02)773-1463, 064)756-6009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 올레, 미사, 기도, 강의

일시 : 1. 17. ~19./ 1. 23.~26./ 2. 2.~4./ 2. 6.~9./ 2. 23.~25./ 3. 2.~4.
대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 064)796-9181

■ 성경 거룩한 독서 피정(2박 3일)

일시 : 1. 19.~21./ 3. 16.~18./ 4. 20.~22./ 5. 18.~20./ 6. 22.~24./ 9. 14.~16./ 10. 19.~21./ 11. 16.~18./ 12. 14.~16.
(금) 14:00~(주일) 14:00

장소 : 경남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강의 : 유덕현 야고보 신부
피정비 : 15만 원/ 문의 : 010-2816-1986

■ 제27회 겨울음악학교

일정 : 2. 2.(금)~3.(토)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주제 : 새 미사경본에 따른 전례음악
마감 : 1. 20.(주일)까지
문의 : 051)517-8241, 2
www.bcmusic.or.kr/mec

■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과정 : 신·구약성경 입문(2년)
방법 : 우편과 이러닝(동영상강의) 성경공부
원서 : http://uus.pauline.or.kr 바오로딸
접수 : 1. 31.(수)까지/ uus@pauline.or.kr
문의 : 02)944-0819~24/ 0840~2(이러닝)

■ 최봉도 신부 희망기도 2박 3일 피정(마음이 가벼워지는 방법)

일시 : 2. 5.(월)~7.(수) 2박 3일
장소 : 경기도 파주 참회와 속죄의 성당 내 민족화해센터
문의 : 전 크리스티나 010-6254-0057

■ 2018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내용 :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원서접수 : 2. 9.(금)까지(우편신청가능)
문의 : 02)745-8339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내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간 : 3월~12월(2월 예비학교 무료)
혜택 : 교육·기숙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취업지원(최근5년평균취업률98.4%)
대상 : 만 15~30세 남자/ 문의 : 02)828-3600

■ 2018년 교황청 꿈나무 캠프 안내

일시 : 8. 14.(화)~16.(목) 2박 3일
장소 : 대전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
대상 : 초등부 3~6학년, 선착순 300명
한 분당 최대 20명까지 신청 가능
참비 : 비회원 12만 5천 원, 회원 8만 원
문의 : 02)2268-7103, pmsk@pmsk.net

하등본당 제19대 사목위원 개편

사목협의회장 : 황점순(카린)
남성부회장 : 임광훈(브루노)
여성부회장 : 조봉심(블란디나)
총무 : 백경동(베네딕토)
기획관리분과위원장 : 우경숙(가브리엘라)
복음화분과위원장 : 임은선(루치아)
전례분과위원장 : 박은주(아셀라)
소공동체분과위원장 : 최혜숙(아셀라)
사회복지분과위원장 : 우정순(로사)
시설관리분과위원장 : 김태은(요셉)
청소년분과위원장 : 김형애(유스티나)
가정사목분과위원장 : 노점남(제르마나)

| 성령기도회 | 일시 | 장소 | 주제 | 강사 | 주례 | 문의 |
|-------|----------------|-------|-------------|-------------------|-------------|---------------|
| 교구 | 1. 8.(월) 19:00 | 월남동성당 | 말씀의 은총 | 윤성규 신부(바오로, 인동교구) | 윤성규 신부(바오로) | 010-5247-9900 |
| 창원지구 | 1. 8.(월) 19:00 | 반송성당 | 예언과 함께하는 치유 | 이상기(가브리엘, 서울대교구) | 정중규 신부(클라로) | 010-9969-5340 |

| 수도회 성소자 모임 | 일시 | 장소 | 문의 | 비고 |
|------------|--|----------------|---------------|----|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 1. 13.(토) 14:00/ 1. 14.(주일) 10:00, 14:00 | 부산 본원 및 원하는 장소 | 010-9319-1690 | - |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굴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땅과 밥상 · 사람과 세상 · 생태계를 살리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우리농 직매장

친환경 농산물 ·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산교구 1호 우리농 직매장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회원에게는 할인의 혜택을 드립니다.)
이용시간 : 월~토 10:00~20:00
주소 :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 112 (남양동 개나리 4차 아파트 앞 상가)
전화 : 055)266-7010

유니어 음악학원
(피아노 · 바이올린)

유치부/ 초·중·고등부 / 일반부 입시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스카이벨링 파크 2층
055)263-9320, 010-2559-3551
원장 최은숙 가타리나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SHINSEGAE UROLOGY & SKIN CLINIC

피부질환/ 비뇨기질환 · 수술/ 전립선암 검진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F(자유시장 사거리)

Raphael Club 라파엘여행사

- 1/30 **이스라엘 9일** (359만원)
- 2/9 2/14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299만원)
- 3/5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299만원)
- 3/5 **이태리, 이스라엘 12일** (39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 02)778-8565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다(BC 931년). 북쪽은 10지파 연합체였기에 이스라엘 국명을 고수했고 남쪽은 유다왕국이라 했다. 유다 지파가 절대다수였기 때문이다. 211년 뒤 북쪽이 먼저 망한다(BC 722년).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자들은 이주해온 이방인과 섞여 살아야 했다. 사마리아인 조상이다. 당시 유다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를 막아냈다. 그러나 136년 뒤 바빌론 침략으로 결국 멸망한다. 왕과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BC 586년). 바빌론 유배다. 포로지에서는 바빌론 말인 아람어를 사용했다. 이후 로마시대까지 아람어는 유다인의 일상어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사용하셨다.

유배는 3번에 걸쳐 있었다. 첫 번째는 기원전 597년. 바빌론 군대가 여호야킴 반란을 제압한 뒤다. 전투 중 여호야킴은 죽고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되어 버틴다. 그러나 3달 뒤 항복한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왕과 지배계급을 포로로 데려갔다. 이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이가 치드키야다. 그런데 그가 11년 뒤 반기를 들자 유다왕국을 멸망시켜버린다. BC 586년이다. 왕과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다. 두 번째 유배다.

바빌론 유배 1



3번째는 BC 582년 이었다. 바빌론이 임명한 그달야 총독이 암살되자 연관된 이들을 모두 잡아간 것이다. 전체 포로 숫자는 확실치 않다. 오천에서 만 명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2열왕 24,16. 예레 52,30).

유다인은 유배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았다. 공동체를 형성했고 집과 땅도 소유했으며(예레 29,5) 예루살렘과 서신도 가능했다(예레 29,1). 정착지는 크바르 강변으로 바빌론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그들은 텔아비브라 불렀다(에제 3,15). 텔은 언덕이며 아비브는 봄이다.

해방(봄)을 희망한다는 염원이 담겨 있다. 현재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Tel-Abib는 유배지의 이 이름을 되살린 것이다. 1909년 황무지였던 땅을 매입해 신도시로 만들었다. 국제 공항이 있으며 이스라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키루스 왕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다. 이듬해(BC 538년) 키루스는 유다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다. 바빌론 유배가 끝난 것이다. 페르시아가 귀환을 허락한 건 정치적 배려였다. 가나안 땅에 우호 세력을 심어 이집트를 견제하려 한 것이다. 유다인은 키루스 왕을 기름부음 받은 자로 표현했다. 메시아 칭호를 준 것이다(이사 45,1).

가톨릭마산

교구보 2018년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교구 기관지인 **가톨릭마산**에
2018년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 미디어국 055)249-7074, 7072
팩스 055)249-7117

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

문의 : 성지 사무실 055)391-1205,
010-3166-0773

명례성지기념성당 조감도

명례성지는 여러분의 희생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명례성지는 오로지 회원님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희생과 사랑으로 신석복 마르코 복자의 생가 터를 매입할 수 있었고, 지금 그 위에 순교자 기념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님께서 기념성당을 위해 성당정문, 감실, 제대, 독서대, 십자가 등 여러 품목을 기증해주셨습니다. 아래의 물품을 계속 기증 받고 있습니다.

- 종류 : 건축공사비, 장례틀(200석), 십자가의 길 성당 내부, 성당 음향기기, 성당 냉·난방기, 오르간, 빔·영상물 음향기기, 전시관 의자 책상집기, 전시관 냉·난방기
- 문의 : 성지 사무실 055)391-1205, 010-3166-0773

명례성지기념성당 조감도